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2008. 6. 23 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8. 6. 19(목)	담당자	재무연구실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억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33 총 2 매

제 목 : 보험 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방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적용 사례

국제회계기준과의 양립성 측면에서 자본비용 방식 선호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IBR 를 발간(2008.6.19)하였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이번 자료에서, 우리나라도 2011 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마진 측정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계리사회(IAA)와 유럽보험감독관협의회(CEIOPS)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마진 측정 방식은 백분위방식, 자본비용방식, 가정방식으로 대별되는데, 이중 자본비용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유럽의 SolvencyⅡ에서도 동 방식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리스크마진을 보유계약 부채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 계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타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

둘째,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 자본비용(cost of capital)"** 산식으로 리스크마진을 측정하기 때문에 요구자본과 자본비용만 결정되면 소형사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식이다.

셋째, **감독당국의 확인 및 검증, 투명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복잡한 확률적 계산을 해야 하는 백분위방식에 비해 더 우월**하다.

스위스는 2006 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비용방식을 사용하여 리스크마진을 측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 3 자가 감독차원에서 요구되는 자본을 투입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리스크마진이 역할하고 있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목표자본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본비용은 일괄적으로 6%로 설정하였다. 2005 년 실시한 테스트 결과 추선추정치(best estimate) 대비 리스크마진 비율은 1~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구자본 대비 리스크마진 비율도 10~60%로 나타나 보험회사별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보험부채를 역사적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자본비용방식이** 보험산업과 타 산업, 보험계약과 투자계약 간 일관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양립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의 경우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계인 SolvencyⅡ를 도입하기 위해 장기간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전문가 집단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리스크마진을 반영하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저축성보험 vs. 보장성보험, short tail vs. long tail)에 따라 리스크마진 비율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재무건전성과 상품포트폴리오 전략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